

조기 대선 가시화...속도 내는 野 주자들

설 대목 귀향 민심 잡기 잇따라 출마 선언·조직 출범

野 심장부터 수도권으로 세 확산...너도나도 호남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진행으로 조기 대선에 예상되는 가운데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아닌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분당을 경험한 여론 성향의 대선주자들은 당 개혁과 신당 창당 작업을 하느라 대선 행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 조기 대선 전선은 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의 귀국 예정일은 오는 12일, 애초 15일 귀국할 계획이었으나 사흘을 앞당겼다. 여기에 올 설은 예년보다 빨라서 오는 28일이다. 주로 해외에 머물렀던 유력 후보의 귀국으로 뜨거워진 대선 전선

이 설 밤상의 화제로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빠르면 4~5월에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선주자들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출마 선언과 대선조직 출범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는 11일 자신의 측근인 박선숙 의원의 1심 공판 결과를 지켜보고, 12일 대선캠프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오는 19일 ‘우리가

가야 할 나라·동반성장’이 답이다’ 출마 캠프를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는 2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같은 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지모임인 ‘국민주권 개혁회’ 발대식을 하고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차대 건설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다음주 중반께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일단 야권 후보들이 대선 전선에 먼저 나서면서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이 주요 공략지가 되고 있다. 1주일이 멀다하고 호남을 찾는 것은 물론 일부 후보는 광주를 출마선언 지역으로 선택하는 상황이다. 야권 후보의 경우 호남의 민심을 잡지 않고는 수도권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가장 앞서가고 있으면서도 호남에서 많은 비토를 받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

표는 광주·전남의 주요 정치인들을 캠프에 합류시키면서 대세론을 표를 연결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는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지지자 모임인 ‘손가락혁명군’ 출정식을 하면서 대선출마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한 같은 당의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주 전북을 방문,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적폐 청산의 대상이지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맹폭을 가한데 이어 이번주에도 호남지역을 찾은 예정이다.

호남의 최대 지지기반으로 뿔뿔이 갈라진 민주당 광주시장을 개헌을 통한 새로운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틈틈이 광주를 찾아 지지세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 대선 경선룰 제정위원 11명 확정

당헌당규위 위원장에 앙승조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선 경선룰을 정할 당헌당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4선의 앙승조 의원을 임명하는 등 모두 11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헌당규위위 내부 인사로 금태섭·백재현·홍익표·한정애·안호영·신동근·박정 의원, 외부 인사로 박상철 경기대 교수, 박희승 변호사, 김유은 정치학회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고 윤관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정 캠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배제했다”면서 “외부인사로는 정치학계 전문가와 법률적 공방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 전

문가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백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추미애 대표는 당내 대선 경선을 마련 작업에 착수하고, 설 연휴 전까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해 12월 캠프별 대리인들을 통해 각 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월 초까지 경선룰을 마련할 방침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논의가 연기됐다.

민주당은 기본적인 경선룰의 틀을 먼저 갖추고, 이에 대한 주자별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최종 경선룰을 만들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야 “세월호 선체 인양·진상 규명”

1000일 맞아 추모 메시지...“내달 참사 특별법 반드시 통과”

야권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을 맞아 9일 추모와 위로의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사회적 재난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아이들을 버리고 간 세월호 선장은 단죄받았지만, 안전을

책임진 또 다른 선장은 유죄판 청와대에서 국민과의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늦어도 2월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지연된 2기 특조위 출범, 온전한 선체 인양,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처벌 등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추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새해 첫날 진도 팽목항에 가서 유가족을 만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 반드시 세월호특별법을 부활시켜 진실이 인양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野 대선 주도권 놓고 거칠어지는 ‘입’

민주 “반기문과 연대는 야합”

국민의당 “친문 패권 청산을”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제1.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거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세워 대선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려는 민주당과 개헌을 고리로 제3차대를 구축하려는 국민의당의 전략이 충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우선,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연대’를 할 경우를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제3차대에 반 전 총장이 참여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충격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선제 타격인 셈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최근 개헌 보고서 논란 등을 내세워 민주당의 바탕을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로 지칭하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반 전 총장 등 충청권과의 ‘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 “사실상 정권교체를 부정하는 말로써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범 새누리당 인사이므로 박근혜정부의 연장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뉴 DJP는 역사적 목표를 상실한 권력 나눠 먹기로 범 새누리당 재집권을 용납하는 것과 같다”며 “한마디로 정권교체



안철수-박지원 “반갑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9일 천안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전국여성·청년위원장후보 합동연설회 참석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지원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위한 것이 아니라 DJ를 모욕하는 것이자 권력 나눠 먹기로 범 새누리당 재집권을 가능케 하는 야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친문 패권주의 청산을 내세우며 맞섰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설회에서 “국민 형세로 운영되는 공당의 정책연구소가 아직 대선

후보도 아니고 일개 당원 신분에 불과한 문 전 대표의 개인 연구소, 선거기획사로 전락했다”며 “이번 파동은 명백한 국고보조금 유용 사태다.

선관위는 민주당원들의 국고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친박(친박근혜)과 친문은 동전의 양면일 뿐이고 모두 사라져야 할 구악 중 구악”이라며 “세

상을 이분법으로 재단하고, 자기와 다른 것과 틀린 것으로 규정하며 아예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다”고 질타했다.

추승용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친노 패권주의, 친문 패권주의가 청산되지 않고서 정권이 창출되면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법정으로 간 새누리 내분

서청원, ‘탈당 강요·명예훼손 혐의’ 인명진 고소

새누리당 인적청산과 관련된 내분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친박(친박근혜)계 말형 격인 서청원 의원이 9일 형사고소함에 따른 것이다.

인 비대위원장은 전날 서 의원이 형사 고소와 직무정지처분 신청을 예고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주 불발됐던 삼일전국위원회를 다시 소집했다.

삼일전국위 재소집은 비대위 구성을 완결해 당무를 수행하려는 게 외형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윤리위원장을 지냈던 인 비대위원장이 공식인당 윤리위원장을 선임해 서 의원과 최경환·윤상선 의원을 포함한 5~6명의

강경파 의원을 제거하려는 노리수로 해석된다.

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정우택 원내대표와 주요 당직자들도 인 비대위원장의 인적청산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날 오전 탈당 강요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인 위원장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소장에서 “당헌·당규 절차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을 강요해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했다”면서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부근 남동측 토지 864.8㎡ 건물 1514.31㎡ 감정가 20억7천2백 ▶ 최저가 14억5천
- ★ [공장] 광주시 북구 일곡동 OB맥주 광주공장 부근 토지 1872.59㎡ 건물 1540.1㎡ 감정가 13억7천2백 ▶ 최저가 9억6천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52.6㎡ 건물 2547.76㎡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7천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무인택배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 ▶ 최저가 15억5천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 ▶ 최저가 21억9천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0억4천7백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토지 23,147㎡ 매매가 평당10만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담후 협의가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성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중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시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8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앞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산구 공항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